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2월 2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연구원 규정 변경(안)과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연구원 이사로 선임된 대한설비공학회 강병하 회장과 국토교통부 이병훈 과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이상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원은 작년 3월 17일 개원 후 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출간했고 국가 R&D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했으며, 여러 학술지와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발표 및 언론 기고를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홍보와 인식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국토교통부 이병훈 과장

은 “연구원은 앞으로도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많은 R&D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송실대 유호선 교수는 “연구원 첫째 외부과제를 1억원 이상 수행한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향후 많은 기술연구 수행으로 자립성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 강병하 회장 (사진 좌)에게 이사 선임장 수여



국토교통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 (사진 좌)에게 이사 선임장 수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6년도 제1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2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연구성과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기본과제 7건 중 완료된 6건(△기계설비건설업 동향 분석 △기계설비건설업체의 부도예측모형 개발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용량 지열설비 이용을 위한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Tool 개발 △기계설비 배관 및 장비 단일 기준 개발 △녹색기술에 근거한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평가 및 후속 연구 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화택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첫 연구성과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학술적인 연구외에 업계나 협

회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도 필요하다”면서 “수행된 연구성과는 저널 등에 게재하여 연구원 대외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선임된 김동탁 위원(조합 기획조정실장)은 “기계설비건설업 발전 및 조합원들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수행된 연구과제를 통해 업계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심의위원으로 선임된
김동탁 조합기획조정실장(사진 좌)

또한 조현일 위원(협회 정책본부장)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하여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하도급에 의한 설계 및 시공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벗어나 적절한 설계 및 고품질 시공을 위해 원도급 설계 및 시공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